

여야 '채상병 특검·방송4법 처리' 강대강 대결

4일까지 본회의...野 법안 상정 방침에 與 "필리버스터 불사"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도 관심...우 의장 결단 주목

여야가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을 놓고 한 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2일 본회의에서 첫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채상병특검법의 경우 찬성 여론이 높아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절차·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자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택할 경우 '토론 종결권'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

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토론이 강제 종료되게 하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사용했다. 이 경우 채상병특검법을 2일 상정해 3일 표결하고, 방송4법 중 한 법안을 3일 상정해 4일 표결하는 시간표를 유력해보인다. 방송4법 중에선 MBC 지 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채상병특검법과 방통위원법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국민의힘에 남은 카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이다. 채상병특검법의 경우 일찌 감치 거부권 행사 건으로 방침을 정해둔 상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김홍일 방통통신

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김 위원장 탄핵안을 2~4일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우 의장을 설득해 김 위원장 탄핵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수 있겠지만, 인사 안건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사 안건은 토론하지 않는 게 관례이고, 인사 안건에 무제한 토론을 불허한 사례도 있다"며 탄핵안이 상정될 경우 토론 없이 표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3년 11월 28일 민주당은 황찬현 감사원

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 관행을 들어 인사안에 대한 토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김 위원장 탄핵안이 표결될 경우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방안도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다. 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이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표결되기 직전 스스로 물러났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방통위 기능이 장기간 멈출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스스로 물러난 뒤 후임자를 세우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홍철호 정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反 한동훈 주자들 "배신의 정치" 협공

국힘 당권 레이스 비방전 가열...한동훈 "공포마케팅" 반박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후보는 당 대표와 대선 후보 자리를 단숨에 거머쥐려 하고 있다"며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자신을 아끼고 키워준 윤 대통령과 차별화도 불사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후보의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뿐'이라는 발언을 두고도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배신, 당에 대한 배신은 별거 아니라는 것으로 들린다"고 적었다. 나경원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라며 "그런 관계에 있어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후보 또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한 후보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에서 나온 '절음'이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것"이라고 한 후보 공격에 가세했다. 한동훈 후보는 세 후보의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공격을 '공포마케팅'으로 규정짓고 반박에 나섰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포마케팅은 구태이자 가스라이팅이고, 확장은커녕 있던 지지자도 쫓아내는 뺨패와 자해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 간 비방전이 가열되는 데 대해 국민의힘 이용구 윤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상호 비판은 할 수 있어도 비방은 안 된다. 당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줘야 하고 희망을 주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정진욱 '지방투자 촉진특별법' 1호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1일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기업의 지방투자 유치 촉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 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외에 지방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체제와 특례 등에 관한 구체 규정 없이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

가 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관리를 도모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편의와 지원 제공 강화로 지방투자 촉진 및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임계점에 달했다"면서 "이 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야, 운영위 '채상병 사건 격노설' 두고 공방

야, 대통령실 유선 전화 사용 주체 소명 요구...자료 미제출 놓고도 신경전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 '02-800-7070' 사용 주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8월 2일과 8일 사이 윤 대통령이 휴가를 갔는데 그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 단장 부부와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전속 부관 및 운전병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문제의 통화 이후 대통령실 전화 회선이 재배치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배치한 것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먼저라며 방어에 주력했다. 권영진 의원은 "공수처를 못 믿겠다, 특검으로 가자"는 것은 스스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던 분들의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강명구 의원은 '특검 수사를 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적폐 세력들의 수법이다'라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2021년 9월 당시 대장동 특검 관련 발언을 소개하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업무보고 사전 협의 문제를 놓고서도 공방이 일었다. 민주당은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인 배준영 의원을 향해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아당의 항의에 '갑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발했고,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창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